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으로 자원화

A Plastic Resources a re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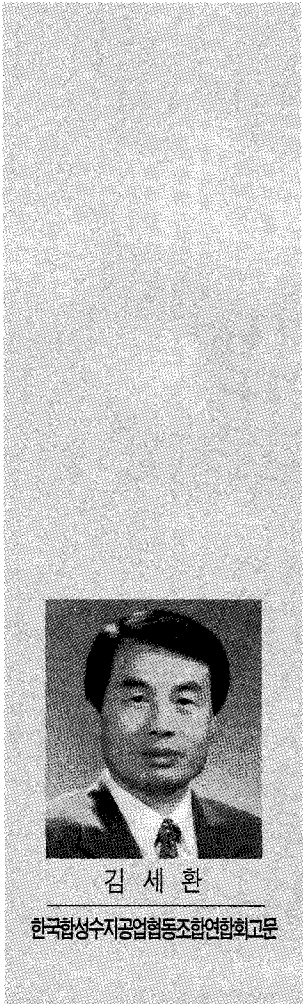
흔히들 걸모양이 번지르하면서 실속이 없는 사람을 기생오라비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평소 포장물을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보잘 것 없는 내용물을 겉포장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쓴웃음을 자아내게 할 때가 종종 있다.

유통과정에서 포장은 내용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외부압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용상 편의를 제공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실용적이었으면 어떨까? 지난 추석 명절에도 예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오간 것을 목격하고 체험도 해 봤다. 포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용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존하고 운반 시 손상 방지라는 안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포장으로서의 치장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포장은 상품의 얼굴이라 한다지만 포장의 과비용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포장방법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활 쓰레기 중 포장 폐기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서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급시기를 조기 집행함과 아울러 개발사업 기간을 충분히 허용함으로써 포장기술 과제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포장기술개발 과제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페어파워킹으로 끝나지 않게 실효성 있게 성공적인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실용화가 되었을 경우 개발참여업체에 필요한 모든 지



김 세 환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고문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나 현실은 오히려 개발과제를 성공할 경우 출연금 20%의 기료를 징수하게 되며 특히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여건이 부적합함에도 업체부담금을 20~50%를 자체 출연케 함으로서 개발참여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포장에 있어 포장재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포장산업분야에서 플라스틱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보전 문제로 플라스틱제품의 생산 규제나 사용억제 등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여기고 있으며 올바른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편리성, 경제성, 내구성 등에 매우 적합한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보다는 처리문제에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과 자원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 촉진이 바람직하다. 폐기물 재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재활용을 하지 않은 물건이 쓰레기화 되어 매립지가 한계에 이르고 환경보전에 악영향은 당연히 끼치게 될 것이다.

현행 매립위주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서 정부와 관련기관 소비자가 합심하여 철저한 분리수거제 정착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처리

를 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 정착과제 활용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행정지도 이상의 강력한 법적인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인력으로 공익요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으로 쓰레기 발생원인 제공자와 수혜자의 부담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모두 자원재활용에 지혜를 짜내어 앞장 서야 될 때인 것이다.

현재 여러 창구로 분산되어 있는 포장관련 단체들의 통합문제는 시대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업계의 절실한 소망이라고 본다.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포장인의 결집된 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포장산업 분야를 획기적으로 주도하고 정부정책의 대행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간에 대표성을 인식시켜 국제교류와 협력에 촛음이 아까운 지경인데도 각자의 아집과 기득권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포장인 모두의 각성과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통합을 전제로 정부지원 정책이 지연되거나 유보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관련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의 통합과제 또한 유사한 경우로서 양분화가 계속되므로 구성원들만이 고통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어찌하겠는가를 한번쯤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